

2020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 6,10)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양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
살레시오회 총장

2020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

발행 살레시오회

발행일 2020년 3월 1일

발행인 최원철

번역 살레시오수녀회

편집 돈보스코미디어

등록번호 제1996-000050호

등록일자 1996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우) 07434

전화 02)828-3535, 팩스 02)828-3538

홈페이지 www.ibosco.net

이메일 dbm@sdb.kr

비매품

원 제 Strenna 2020

Copyright © 2020 by Salesians of Don Bosco, Rome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by Don Bosco Media, Seoul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목차

1. 돈 보스코가 생각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8
1.1. 성령의 인도 아래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12
1.2.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경청하며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15
1.3. 복음화를 필요로 하는 착한 그리스도인. 첫 선포와 교리교육을 제공하기: “이 수도회의 기원은 바로 단순한 교리교육이었습니다.”	17
1.4. 진정한 살레시오 영성을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23
1.5. 비그리스도인, 탈신자 혹은 탈그리스도인 환경의 도전을 마주하는 착한 그리스도인	31
1.6.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착한 그리스도인	38
2. 정직한 시민	41
2.1. ‘참생명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	41
2.2.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교육하기	43
2.3.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치 활동의 의무를 교육하기	46
2.4.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직성과 합법성에 대해 교육하기	53
2.5. 정직한 시민: 세계의 이주와 이민에 대한 감수성과 공동 책임감	57
2.6.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공동의 집을 보살피는 정직한 시민	64
2.7. 인권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법	69
마지막 한마디: 정치에 관해 돈 보스코가 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77

2020년도 생활지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 6,10)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살레시오회 형제들과 함께 올해 생활지표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을 사로잡는지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말마디가, 풀어낼수록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몇 주간의 작업 후, 더욱더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주제는 매력적이고 유용하면서도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살레시오 가족의 각 그룹이 그리스도인과 시민의 양성에 관한 몇 가지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심으로 느낍니다.

→ 우리의 사명은 복음 선포와 교리교육이라는 점을 항상 더욱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는 될 수 있겠지만 어린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 교육자라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생명, 정의, 기회균등, 약자 보호, 정직한 시민 생활의 증진과는 아무 관계 없는 미온적 상태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믿지 않는 현 사회에서 이러한 차원은 어느 때보다 더 긴급한 것입니다. 과연 교육하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 덕분에 올해 생활지표로 함께하는 성찰은 꼭 필요하고도 실제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에 장애물이 더해집니다. 1800년대에 돈 보스코를 방향 잡아 주었던 교육 노선이,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대다수가 비그리스도인이거나 탈그리스도 사회 혹은 공식적으로 세속주의나 반종교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돈 보스코 가족들의 '살레시오 세계'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까?

이 면과 관련하여, 생활지표는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저에게 몇 가지 문의를 해 왔습니다. 대단한 사목적 감수성을 내포한 그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다수가 비그리스도인(타 종교, 불가지론자 혹은 무관심자인) 관구에서는 이번 생활지표가 ‘비그리스도’ 혹은 ‘탈그리스도’ 환경에서 교육 사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성찰을 도울 수 있도록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돈 보스코가 말하는 **교육의 두 노선**을 비그리스도인 젊은이들과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수가 그리스도인이던 돈 보스코 시대에서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종교심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의 카리스마가 확산되어 있는 134개국에서는, **예방교육시스템(예방교육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듯 신앙이 전달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복음 선포를 시작하면서, 비그리스도인 일반인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들에게 개방성과 포용의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세상의 커다란 종교 사이에 소수의 가톨릭 교회가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살레시오회 40개 관구들이 당면한 **다문화, 다종교 환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돈 보스코께서 1800년대에 하셨던 일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그리스도 국가에서 예방교육을 살고 있는 **살레시안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삶의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며, 돈 보스코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종교, 다문화 환경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돈 보스코의 생각들을 해석해 낼 줄입니다.”

대다수가 비그리스도인 혹은 탈그리스도인인 환경에서의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 이에 대해 몇 가지 정확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 봅시다.

- 비그리스도인 젊은이들과 일반인 동역자들 사이에서 돈 보스코의 두 노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개방성과 복음의 첫 선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비그리스도교 일반인 동역자들 대다수에게 ‘착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까요?
-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종교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종교’라는 중심 요소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 돈 보스코 예방교육 영성의 세 요소인 이성, 종교, 자애(Amorevolezza)를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의 사명을 공유할 때, 돈 보스코의 ‘착한 그리스도인’을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 총장 신부님은 타 종교의 일반인 동역자들도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하고 충만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 교육사목 공동체에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동참시키나요?

- 살레시오 교육 사명에 참여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마음에 끌리는 표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생활지표를 전개해 나가는 동안 각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가장 정확한, 어쩌면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지표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돈 보스코가 생각한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¹⁾

누군가는 돈 보스코가 교육의 두 노선을 제안하고 활용했는가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는 브라이도 신부가 엄밀한 연구로 심화시킨 분야 중 하나입니다. 돈 보스코가 항상 추구했던 이 교육 제안과 여정이 대상자를 고려하여 뉘앙스를 바꿔 가면서 같은 말이나 다양한 표현으로 변용하였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분은 바로 브라이도 신부입니다. 그러나 젊은이 교육과

1) 돈 보스코의 마을에서 비롯된 지극히 살레시오적 표현인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두 가지 노선에 대한 언급은 피에트로 브라이도 신부를 통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되었다.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Buoni cristiani ed onesti cittadini*」, RSS, vol. 24, pp.36-42(1994).

사회의 선, 영원한 구원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주제는 변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노선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표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그들이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시다(1857).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농민이 됩시다(1857).
- 모두 착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1862).
- 모두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게 합시다(1872).
-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광과 착한 시민의 의무에 대해 교육합시다(1873).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됩시다(1875).
- 버림받은 젊은이들이 신앙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민 사회에서 정직한 시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약간의 선을 행합시다(1876).
- 교회에 착한 그리스도인, 시민사회에 정직한 시민을 준비시킵시다(1877).

돈 보스코는 많은 저서, 특별히 편지에서 자신의 교육사목의 두 노선을 아래의 표현들을 통해 잘 정의 내렸습니다.(브라이도 신부의 학술, 역사 원전에 따른 것입니다.)

- 착한 신자,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목표입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유용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 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기 바랍니다.
- 한 젊은이가 이 오라토리오에 들어오면 여기는 종교적인 곳,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이 되기를 열망하는 이들의 장 소라는 점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 그들을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으로 시민사회에 되돌려 줍시다.
- 그리스도와 시민의 덕을 교육받은 이들은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됩니다.
- 그들이 정직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과 현명한 시민으로 삼시다.
- 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하고 유용한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희망.
- 이제는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입니다.
- 여러분이 착한 그리스도인, 명예로운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항상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사람임을 보여 주십시오.
- 우리 회원들의 목표는 착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한 시민을 양성 하는 것입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고 시민사회에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해.

- 착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시민이 되어 나갑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으로 사회에 되돌아갑니다.
- 그들이 착한 시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
- 착한 그리스도인과 현명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 착한 그리스도인, 현명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아,
- 착한 그리스도인, 현명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유용한 시민이 되게 하면서,
- 착한 그리스도인,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계속하십시오.
- 시민사회에는 유용한 구성원들을, 교회에는 덕스러운 신자들을, 하늘에는 복된 주민들을 선물합니다.
- 착한 시민,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 시민사회에 그들을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으로 되돌려 줍시다.
-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정직하고 근면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이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십시오.
- 착한 자녀들, 정직하고 신자인 아버지들, 훌륭한 시민들보다 가정·교회·사회에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 되십시오.
- 그들을 가정·사회·교회에 착한 자녀들, 현명한 시민들, 모

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되돌려 주십시오.

마치 멜로디는 같지만 다른 느낌으로 연주하는 일종의 악보와 같음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도 신부는 한 연구에서 돈 보스코가 이론가가 아님을 이해시켰고, 다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 보스코는 행동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목적 창의력이 지닌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행동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한 어휘와 표현된 개념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의 활동은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 차원뿐만 아니라 실행하는 해결 방안 차원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한 '이론적' 인식을 지닌 활동 노선을 따라 움직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부각됩니다. 그가 한 많은 표현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두 가지 측면, 즉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반복하였던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입니다.

1.1. 성령의 인도 아래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만약 우리가 돈 보스코께서 모든 소년들과 초창기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개별 메시지와 함께 새해의 생활지표를 선물하셨던 12월의 끝 무렵, 우리의 기원으로 돌아간다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오라토리오에 살고 있었던 모든 소년들과 교육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귀중하고, 동시에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집에서 진정한 가족을 형성하였던 첫 살레시오 회원들, 오라토리오의 어머니들, 도움을 주던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돈 보스코의 생애 중 그 가난한 환경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성인과 복자의 수는 인상적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서로 성덕을 가르치는 학교,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 보스코는 도미니코 사비오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으며, 도미니코 사비오와 그의 동료들은 돈 보스코에게,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그의 '평생양성'에 끼쳤습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견고해집니다."²⁾ 강한 신앙을 서로 주고받는 삶으로부터, 온 세상에서 살레시오 가족의 영적 여정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성덕의 학교가 태어났습니다.

돈 보스코 카리스마의 핵심은 바로 신앙과 삶의 조화입니다. 그의 얼굴과 인생 역사에서 "우리는 돈 보스코 안에서 본성과 은총이 훌륭하게 조화된 것을 찬탄합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으며, 자기 거래의 고유한 덕성을 풍부히 갖추었던 그는 지상 현실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은총으로

2)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회의 선교 사명』 2항.

넘쳤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는 듯’ 살았습니다.”³⁾

오늘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상태, 나이, 성소 그리고 종교에 상관없이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장려하고 열렬히 실천하고 계신 친교에 관한 교회론에 따르면, 각 그룹과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을 위해 선물이 될 때 비로소 실현되고 밝혀 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과 소명을 통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가진 선물을 맞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부르심 받은 이로서 존재하고, 스스로를 봉헌하는 이들, 각 개인과 그의 특별한 성소 안에서 구체적으로 육화되는 살레시오 가족 축성 생활자들의 중심과 마음에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축성 생활자들이 ‘은총과 본성의 일치’의 상징(아이콘 icon), 하느님 사랑과 부르심 그리고 자유의사에 기반한 일상의 관대한 응답 사이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만남의 상징(아이콘)이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삶의 의미, 즉 충만한 가

3) 살레시오회 회헌 21조.

치를 깨달아 '밭에 묻힌 보물'을 찾는 것과, 그들의 존재가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시노드는 새 세대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친 이들로부터 "빛을 비추고 언행일치하는 증언자들"⁴⁾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평신도·부모·젊은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신앙이 선물이라면, 신앙의 삶 또한 선물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위대한 능력 그리고 의지로 일으키는 강한 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은총과 자유 사이의 대화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여는 결코 각 개인, 공동체, 살레시오 가족, 교회, 세상, 역사 그리고 온 우주 안에서 분별 있고 효력이 있는 활동을 하시는 성령의 현존, 하느님의 미리 보살피는 사랑 밖에 있지 않습니다.

1.2.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경청하며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4) 제15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의안점(Instrumentum Laboris)」, 175항.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은 큰 도시의 혼란스러운 변두리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후, 생애 마지막에 도달한 한 현명한 선교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별 동반을 위한 기초 예술인 경청의 능력을 재발견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경청을 배운다는 점이 젊은이들에 대한 시노드가 온 교회에 제공한 가장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경청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경청이 지닌 생명력은 상당 부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청은 위로 뻗어 가는 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청은 부르심과 응답의 만남, 새로운 깨움으로 채신시키는 모든 성소의 기본이 됩니다.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것은 몇 가지 실천 혹은 특별한 순간을 통하여 담아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청은 일반적으로 감각스러운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지순례나 성경 속 많은 인물들, 성인들의 삶을 관상하는 것을 통하여 완성되는 꾸준한 성숙의 과정입니다.

점점 더 강도 높은 활동의 리듬과 미디어 자극에 지속적인 과다 노출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사회 배경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는 무척 귀중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하느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내적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 소중한 자세는 바로 '침묵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언어가 표현되는 문법입니다. 다른 모든 언어와 항상 다르게 구별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의 경청, 우리 마음의 조화 그리고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 맺은 친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복음이 계시하는 바를 스스로 따라 하고자 하는 애정과 생각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고, 더욱더 심오한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 행로 위에서 듣는 것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사이의 일관성이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경청하는 것은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 하는 것처럼 매일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1.3. 복음화를 필요로 하는 착한 그리스도인, 첫 선포와 교리교육을 제공하기:

“이 수도회의 기원은 바로 단순한 교리교육이었습니다.”(이탈리아어판 『돈 보스코 전기』 9권, 61)

“젊은이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 (...) 참으로 그는 영혼을 위한 일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⁵⁾ 돈 보스코와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었던 이, 돈 보스코를 다른 어떤 이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로부터 나온 이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사목적 사랑의 강렬함을 거의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 줍니다. 돈 보스코가 ‘사제가 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카파소 신부님은 그에게 토리노의 감옥을 방문하도록 재촉하였으며,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험난한 가난의 도전들 앞에서도 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모든 이들, 미켈레 마고네부터 도미니코 사비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걸음에 맞추어 적절하게 영적 성장의 더 높은 이상을 제안하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로운 하느님을 본받아 젊은이들이 지닌 자유의 정도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⁶⁾

각각의 젊은이들, 또한 더욱더 위험에 처한 이들 (난민 캠프 혹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현존하는 살레시오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5) 살레시오회 회헌 21조, 돈 부아 편지(1894, 8, 24)에서 인용.

6) 살레시오회 회헌 38조.

바로 앞에서 동반할 줄 알고, 그곳에서 개종주의의 자세 없이, 나아가 두려움 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할 줄 아는 사목 접근 방법의 현대적 감각은 아주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인들을 통하여 교회에 선물해 주신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이 남아 있는 그곳에서는 결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첫 선포를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더 적절한 상황 혹은 보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미루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 점을 많이 강조하였고, 이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청년 사목에서 ‘더욱 탄탄하다고 내세우는 양성을 위하여 케리그마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보다 더 탄탄하고 깊이 있고 확실하고 의미 있고 지혜로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케리그마의 심화입니다.’ 케리그마는 우리 삶 안에 더욱 온전히 구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사목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새롭게 하고 심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기회들을 늘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 노래, 조배 시간,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성찰을 하는 자리, 소셜 네트워크의 현명한 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만나는 이 기쁜 체험이 일종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체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⁷⁾

진정으로 우리는 첫 선포의 중요성을 믿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디지털의 속도로 진행되는 급속한 변화는 놀랄 만한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다양한 삶의 접근 방식마저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generation-gap)는 아마도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2000년 후에 태어난 이들에게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화가 되어야 할 땅일까요? 인터넷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의 젊은이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 세대들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과 주파수를 맞추어 가며, 그들에게 복음의 빛과 힘을 처음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이사 6,8) 성령의 선물, 카리스마를 통하여 젊은이들과 만나는 데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종교적 다양성과 더불어 그들이 처해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살레시오 가족을 향한 전 교회 공동체의 입술에 이사야

7)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14항.

예언자의 이 옛 말씀을 올린다면 더 없이 현대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적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자신을 뒤로 빼는 것은, 살레시오 가족에서 그리고 돈 보스코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정신으로부터 자신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첫 선포가 최소한의 어떤 것 그리고 제한적이며 그 자체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돈 보스코는 모든 것이 '단순한 교리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종종 회상하셨습니다. 그가 함께 살았던 젊은이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함'이 결코 '피상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하느님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개인의 체험"에 도달하게 될 때, 종종 젊은이들이 스스로 그들을 동반하는 이들의 선교사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오하면서도 진실된 삶의 나눔과 증거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돈 보스코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돈 보스코는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쉽게 접근하여 친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젊은이들과 함께 거룩함에 대해 직접 초점을 맞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은 매력적이나 전력을 다해야 하는 장¹⁰을 우리들에게 열어 줍니다. 첫영성체,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연속적인 만남만이 아닌 '교리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제품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일련의 시험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신학'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교리교육은 신앙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이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과 같은 하느님 신비의 아름다움으로 마음과 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살레시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천절한 빛'에 매료되어 그 빛과 사랑에 빠진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 보물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교육자-사목자로서의 우리 존재 방식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마음을 지닐 때 우리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불가지론^{不可知論} 혹은 무신론을 고백하는 젊은이들, 가족들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에 대한 더욱더 섬세한 존경을 표현하면서 진정한 나눔과 단순한 증거를 보여 주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발도코 오라토리오의 시작에서처럼 신앙의 성장은 함께일 때만 가능합니다. 동반하는 이들의 영적 여정이 강렬할수록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영적 여정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은 '논리적 과정보다는 자연

스레 스며드는 방식'으로 인해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여정은 사목자들이 항상 더 성장하게 자극을 줄 것이며, 종종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들의 갈증에 응답하기 위해 그들이 원천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1.4. 진정한 살레시오 영성을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와 교회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영성과 사명은 같은 걸음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영성으로부터 사명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명에서 선교를 분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사명과 영성을 통합된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활동을 통하여 **각자 삶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데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이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으로 만족을 찾는 상태나, 피로와 혼란이 우리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피로사회에 대해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 사목자들도 피곤에 질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극도로 피곤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할 일로 가득 찬 팍팍한 일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

는 과도한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 곧 적절한 동기가 없고 영성이 스며들지 못하여 즐겁게 수행하지 못하는 활동입니다.⁸⁾ 많은 피로의 원인을 우리 일정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기 부여의 부재 그리고 사명과 영성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피곤함을 치료하려면 원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삶을 부여합니다. 돈 보스코께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발도코 오라토리오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오라토리오의 젊은이들과 살레시안들에게 편지를 써서 초창기의 생활과 기쁨 그리고 현재의 위기를 비교했습니다. 오라토리오에서 기쁨, 생명, 신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결론은 첫사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 영성

영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단어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날 유행하는 많은 영성 제안은 예수님 그리고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매우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영성에 대한 갈망이 다시 꽃피어 나는 현

8)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82항.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에 대한 갈망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관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들 안에서는, 계시된 하느님에 대한 알과는 아직 거리가 멀고 여전히 모호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서는, 형제애를 향한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여 이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에게는 특별한 예술적 감수성이, 어떤 젊은이에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소통을 향한 깊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바람을 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격려와 지혜와 용기를 주는 한마디 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출발점, 내적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⁹⁾

이러한 열린 태도는 ‘길을 찾는’ 젊은이들과 성인들을 위해 살려시오 가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빛과 격려입니다. 거의 대부분

9)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84항.

의 상황이 비슷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종교의 표징들이 힘과 활력을 잃어버린 곳에서 이 문제는 시급합니다. 길을 찾고 있는 이들과 소통을 할 줄 아는 것은 관계의 다리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교황께서 다음 말씀을 통해 요청하는 바일 것입니다. “아버지, 사목자, 청년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씨를 지니고 있는 작은 심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는 연약한 갈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이사 42.3 참조). 이는 남들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길을 식별하고, 남들이 위험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그분께서는 젊은이의 마음에 뿌려진 선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길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은 ‘거룩한 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우리가 신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신비에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하느님 생명의 못자리입니다.”¹⁰⁾

이러한 시선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돈 보스코께서 소년들에게 다가가고 동반한 스타일과 방법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교 영성

영성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 자

10)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67항.

리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에서 태어났으며, 교회의 역사적 순간마다 가장 특징적인 가치들을 간직해 온 그리스도교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 안에 육화되었으며, 문화적 상황에서 구체적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모든 시대의 필요에 응답해야 하며, 현재라는 시간의 범주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배경과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에, 복음으로부터 나온 가치들이 소통, 대화,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위해 무척 중요한 다리가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역사와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십니다.”¹¹⁾ 따라서 영성 생활의 결정적 포인트는 바로 세상과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식별의 기본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무위도식하며 계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모든 남자와 여자 안에 이미 현존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과 마음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부터 사명을 이해하게 되면, **청소년사목의 목표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도록 도와**

11) 교황 프란치스코, 2019년 10월 28일 삼종 기도.

주는 것입니다.

돈 보스코는 항상 하느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사건들을 읽어 낼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합시키는 생명력 있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활동 덕분에 견고하고 통합되어 있으며 체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점을 의식하고, 하느님의 신비와 세상과 역사의 감각을 직각하게 하는 믿음의 지성을 소유하며, 하느님 나라를 섬기는 형제들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을 생활화합니다.

언급한 내용은 영성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들어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특별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 진가를 알아차리고 소중히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의 모든 위대한 문서에서 영성에 대해 다룹니다.

→ 선교사 제자의 영성¹²⁾

→ 생태 영성¹³⁾

→ 혼인과 가정의 영성¹⁴⁾

12)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39-288항.

13)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81-213항.

14)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278-289항.

→ 영성 생활의 기원이자 목표인 성화¹⁵⁾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⁶⁾ 왜냐하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영성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삶은 꿈, 경험, 관계, 계획과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선택하는 모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열렬하게 살며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형제애를 살아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용기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고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살레시오 영성

살레시오 영성이라 함은,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거대한 강’ 안에 자리한 카리스마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뜻하고, ‘살레시오’는 구체적인 카리스마의 스타일을 지칭합니다.

돈 보스코의 영적 경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살레시오 영성을 이

15) 교황 프란치스코, 『기쁘하고 즐거워하여라』의 주요 핵심 요소.

16)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59항.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이들의 교육과 복음화에 자신을 바친 사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도 활동의 창립자, 분명하고 강한 사도적 영성으로 활동한 카리스마에서 생겨난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살레시오 회원들, 평신도 동역자들 그리고 오라토리오의 젊은이들과 함께 살았던 돈 보스코의 영적 경험에서 살레시오 영성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적 전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특별한 방식을 봅니다. 이러한 교육적·사목적·사회적인 활동과 교육적이고 영적인 제안을 우리는 예방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성은 아주 고유한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영성, 기쁨과 낙관주의의 파스카 영성, 예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관계와 우정의 영성입니다. 살레시오 영성은 교회적 친교의 영성, 마리아 영성이며, 항상 돈 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착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시민**이라는 목표를 제안하는 책임감 있는 봉사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가정에서 관대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특히 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대 의식을 장려합니다. 정직함과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임하고, 정치 분야에서 정의, 평화 및 공동선을 촉진합니다. 창조물을 존중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장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다양한 장소에서 돈 보스코의 카리스마에 따른 살레시오 영성의 부분이며, 살레시오 가족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방식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1.5. 비그리스도인, 탈신자 혹은 탈그리스도인 환경의 도전을 마주하는 착한 그리스도인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신자인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젊은이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과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세상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다양성은 우리가 성령 강림 때 받은 선교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국경도 한계도 없습니다. 복음은 한계도 국경도 없기에 모든 이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에게 파견하시고, 살레시오 사명이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로 인도합니다. “두려워 말고 사회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곳에, 심지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무관심해 보이는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가 당신 자비와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 학교, 스포츠, 교우 관계, 봉사 활동, 직장 안에서 두려움 없는 선교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복음의 기쁨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¹⁷⁾

17)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77항.

이 때문에 사명은 가슴을 뛰게 하는 만큼 촉구합니다. 신앙으로 부터 멀어지고,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목 차원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즉, 비그리스도인, 탈그리스도인 환경에서 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몇 가지 위협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탈그리스도인의 맥락에서 우리는 근본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배타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해야만 합니다.

자기 주머니 속에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근본주의는 대화에 폐쇄되어 있고, 자신의 신념에 강하고 타협이 없으며, 반동적이고 비관용적인 방식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규범도 확실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적 환경은 상대주의에서 자신의 자연 서식지를 찾으며, 어떠한 진리에 대한 주장도 감당할 수 없는 공격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우리 사목 활동에서는 근본주의나 상대주의,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시노드 의안집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우리가 동일시할 수도 있는 다른 어떤 세속 단체와도 구별되게 만드는 진리이시다.”(준비 모임 11항) 말

진리의 세상에서 이 문장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불가피하게 또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이는 세상 정신을 따르고자 그리스도교의 가장 귀중한 특징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다. 젊은이들도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문화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성경 전승에 따라 진리는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를 체험할 때에 인간은 진리를 발견한다.¹⁸⁾ 시노드 의안집은 관계의 길을 활용하고 관계적 사목을 강화하라고 제안합니다. 마치 출입구는 관계를 돌보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은 항상 이 관계의 원칙을 실천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위험은 배타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먼저 배타주의는 두 얼굴을 지닙니다. 하나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젊은이들과 성인들, 오직 엘리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감수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어떠한 사목적 제안이든 검열하여 걸러 버립니다. 결론은 오직 소수만을 위한 사목적 제안이 되든지, 아니면 사목적 제안의 절대적인 부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사목 활동의 제안들이 더 멀리 있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화 프로젝트에 대

18) 제15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의안집(Instrumentum Laboris)」, 55항.

한 확신이 없음을, 사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엘리트주의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열은 우리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사목적으로 몰두하지 않아도 될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동전의 다른 측면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의 사목 제안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전의 제안들을 단편적으로 취하여 혼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자들의 제안은 어떠한 식별의 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채, 항상 새로움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문해 봅시다. 과연 가능한 다른 제안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 말씀의 씨앗을 보살피야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말씀의 씨앗을 찾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미 2세기부터 성 유스티노와 같은 교회의 학자들로부터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수세기에 이르는 교회 전통의 기초가 되는 이 가르침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더욱더 장려하였습니다.

공의회는 이 가르침을 상기시키면서도 다른 종교와 문화의 전통에 존재하는 진리의 다양함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씨앗들 안에는 이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현존하십니다. 비록 어린싹의 모습으로만 있을지라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입니다. 이 사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공간과 장소를 요구하는 비그리스도교, 탈그리스도교 사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사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안에서 그 '만남의 접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 가치·인간 존엄성·평화를 찾는 상황에서, 또 이방인 혹은 의견이 다른 이들에 대해 연민과 존경의 덕을 쌓는 상황에서, 그 외에도 창조물과 생태계 등을 지키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오늘날 세계 차원의 사회적 민감성과 대단한 실제성을 띤 것으로 우리가 단순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점은 확실합니다.

→ 대화

비그리스도인, 탈그리스도인 배경에서의 두 번째 제안은 바로 **대화**여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계라는 주제에 대한 성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경청할 줄 알고,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친교의 경험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필요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대화는 단지 의견을 내놓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체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인

할 수 없는 차이를 직면할 때 존중하는 분위기를 항상 도모하고, 대화는 고유한 부(좋은 점)를 가지 있게 받아들이기 위한 신뢰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위한 겸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목적 대화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에 대한 대화입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열린 태도로 그들의 기쁨과 수고, 열망과 희망, 그들의 종교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리를 아주 풍요롭게 하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만남의 훈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와 다른 그들의 존재 방식, 사고방식,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정의와 평화에 봉사할 의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의무가 우리의 모든 교류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¹⁹⁾

→ 증거자의 가치

덜 중요하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은 증거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증거자의 가치는 언행일치, 책임 그리고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많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며, 믿을 만하고, 타인의 선을 위해 헌신

19)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50항.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증거자입니다.

→ 선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명시적으로 선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복음화의 모든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탁월성 없이는 진정한 복음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²⁰⁾ 선포는 결코 개종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각각의 환경에 따라 다른 표현의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의 선포는 비그리스도교, 탈그리스도교 상황에서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동반해 주신다.*

어떻게 이를 선포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선포는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믿음이 불러일으켜질 때까지 그저 제시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선포는 천밀감과 다가감이라는 특성을 지닌 스타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룹이나

20)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10항.

공동체에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즉, 각 개인에게 선포가 도달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자원이나 사목적 전략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1베드 3,15-16^{*)})

1.6.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착한 그리스도인

선교는 주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의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묘사하신 선교사 제자들의 영성적 특징들을 기억해 봅시다. 교황께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선교적 파견을 놓아두십니다. “백성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사명은 제 삶의 일부도 아니고 제가 떼어 낼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또한 삶의 부록도 아니고 삶의 한순간만도 아닙니다. 이는 저 자신을 없애지 않고서는 제 존재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²¹⁾ 교황께서는 존재의 중심에 선교를 두십니다.

21)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73항.

1) 타인을 위한 당신의 삶

하느님과의 만남은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내 안에서 나를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내어 줌의 인간학'이라 하였으며, '타인을 위한 당신의 삶'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오늘날 많은 이들의 마음에 뿌리내린 무관심으로 인해 타인의 울부짖음 앞에서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심하고 연민이 가득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신은 신앙의 실천으로 변화되며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황홀경'이라 일컫습니다. 이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들어 높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느님의 모상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저마다 감추어 있는 아름다움과 그의 존엄과 위대함을 깨닫게 이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들의 행복을 추구하

도록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²²⁾

2) '나'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이 방식으로 타인을 위해 열려 있는 삶을 이해할 때, '나'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옮겨 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 중심의 문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문화는 대단한 가능성(개인적 성장, 자주성, 개인의 발전)을 제공하지만 대단한 취약함(타인에게 조금만 열려 있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나르시시즘, 철학적 현재주의)도 숨기고 있습니다.

성서에 따른 인간학에서는 믿는 이를 '여기 있습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사야, 나자렛의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의 삶에서 의미 있는 순간에 외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 따르면, 예수님 스스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히브 10, 7)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22) 로랑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64항.

변화하는 여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초월적인 신비에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인간다운 존재 방식과 생활양식을 찾기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고 동반하는 성령께로 존재를 개방하는 태도와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모든 성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한 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인간 삶과 어우러지고 우리 삶의 토양에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삶의 역사입니다."²³⁾

2. 정직한 시민

2.1. '참생명의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의 살레시오 사명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해석 중 하나는 젊은이들을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려는 선택을 확실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 일상의 삶, 현재가 바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젊은이들, 가정들 그리고 모든 사*

23)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52항.

람이 있는 장소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다면, 인간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헌신도 없으며, 복음화와 신앙의 여정도 없을 것입니다.

돈 보스코로부터 배운 젊은이들을 만나는 능력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위한 헌신, 그들의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친교를 맺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일하는 살레시오 가족으로서의 창립 카리스마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개발 증진의 모든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향상 과정의 일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타인을 만나며 더 정의롭고 모든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이 받은 선물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생활을 자신의 삶으로 삼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의 원칙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이들의 선익과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려는 단체들의 사회적 헌신과 복음의 제안이 '대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정의와 형제애의 '정치', 연대 의식, 화해, 존중, 평등 그리고 약자 보호 정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을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

다. '선'은 차별과 배타주의를 배격하면서 각 사람과 그의 전체성 안에서 개인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일렸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곧바로 우리를 명백히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마르 9,40)입니다.

2.2.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교육하기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주는 질문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흔히 돈 보스코께서 본인의 정치는 '주님의 기도' 정치라고 하시며,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다고들 합니다. 확실한 것은 어떤 정치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성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제시하는 바를 정치 분야에 적용하는 일이 바로 인간에 대한 염려와 그들의 삶을 조건 짓는 요인을 개선하는 인간적·복음적 헌신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기,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에 무관심한, 텅 빈 영성주의로 주님의 기도를 축소시키는 그런 가치 부여와는 달리 당신의 모든 자녀들인 인류의 행복과 선을 추구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실용적인 일과 손쉽게 얻는 결과에 매우 익숙합니다. 과정과 여정을 실현하기 위해 씨를 뿌리는 부담을 안고 있거나 오랜 기다림을 받아들이기 위해 마주쳐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정으로서 사회적 헌신에 대해 교육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 없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난하고 버림받고 위협에 처한 가난한 젊은이들 없이 돈 보스코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 헌신 없이 즉 정의와 사랑 없이, 무엇보다도 더 어려움에 처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 방치되고 버려진 이들의 선익을 위한 봉사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인간 개발 증진 없이는 진정한 정치적·사회적 행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헌신과 정치적 행동은 사회 내의 사람들과 인간 개발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덕의 길(영적인 삶)과 사회적 헌신(시민의 삶) 사이에 확실한 이분법, 즉 이 둘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덕의 길과 사회적 헌신이 노동의 존엄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그 목표로 하고, 그 일에 믿음

을 가진다면, 가난한 이들과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은 복음과 일치하는 체험이 됩니다.

사회적 차원은 신앙의 체험을 배제하지 않으며, 정확히 하자면 사회적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인간 활동의 초월적인 차원이 보다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에서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가진 능력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점을 판독하시고, 충만한 삶을 향한 헌신은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가꾸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십니다. 이 모두가 젊은이들의 교육자이며 복음 선포자인 우리들에게 사목적 제안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러한 헌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의 마음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 더욱 정의롭고 형제애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발, 변화의 주인공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만 맡겨 두지 마십시오!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무관심에 대항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그리스도교의 응답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미래를 건설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

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발 삶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구경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여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서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현실의 삶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 제 28차 세계청년대회 동안 밤샘 기도에서 한 연설, 리우데자네이루, 2013.7.27.)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또한 가난한 이들의 봉사자, 자선과 봉사의 혁신적 주인 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소비주의와 피상적인 개인주의의 병폐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⁴⁾

2.3.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치 활동의 의무를 교육하기

“돈 보스코가 가졌던 사고관에 따른 사회는 윤리와 종교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참여라는 기초 위에 건설된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레시오 교육의 제안은 가장 약한 아들과 소외된 아들에 대한 열려와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자신의 책임, 전문성, 정치 활동에 대해 의식하며, 정의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의 변화와 삶의 비전을 위하여 타자성

24)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74항.

젊은이들의 문화, 검소한 생활양식의 문화, 무상으로 내어놓는 한결같은 태도의 문화, 정의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의 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²⁵⁾

사실,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시대의 많은 사회 정치 체계는 우리가 믿기 원하고 믿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민들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육 환경은 젊은이들이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응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참여를 하도록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 젊은이들이 유능하고 자유로우며 언행일치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능력과 필수적인 태도들을 획득할 수 있게끔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이 시대에 어떻게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들이 살레시오적으로 공동 협력하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부서지기 쉽고 파편화된 현실, 많은 경우 부패와 도덕성 결여가 담합한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상황, 특히 개인주의를 겨냥하는 관행적 빈혈 상태에 놓인 현실에서, 우리는 정치사회 상황에서 ‘정직한

25) 파스칼 차베스, 『예방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의 방침과 인간 권리』, p.82.

시민'으로의 봉사에 헌신하도록 젊은이들을 교육하자고 다시 제안해야만 합니다.

많은 정책들(경제, 사회, 교육, 의료, 국제) 중에서 살레시오 가족인 우리는 '주님의 기도' 정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 정의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 '늘' 우리 곁에 있는 더 가난한 이들(마르 14,7 참조)과 함께하는 '맨발'의 정치, '일용할 양식'의 정치 말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편을 택하기에 '정치적으로 보면 줄을 잘못 서는' 편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로메로 몬시뇰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정치적 차원이 존재함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신앙의 정치적 차원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세상에서 육화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며, 해방의 과정을 고무하며 그들의 상황을 옹호하고, 그들의 운명에 참여합니다."²⁶⁾

따라서 교육자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정치 활동 및 사회 활동에 대해 큰 꿈을 가집니다. 연대 의식과 인류의 형제애, 타인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진정한 만남, 여기 그리고 지금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26)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 로마니오대학의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한 강의 중(1980, 2, 2).

활동들에 대한 포부를 가집시다.

공동선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정치 생활의 목적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치 참여에 관해 이러한 비전과 기준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강한 신념으로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 항상 공동체와 개인의 통합적 차원의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초월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
-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통합적·지지적·연대적인 발달 증진
- 무관심, 배제, 이기주의의 거대한 거품에 대항하여, 특히 가난하고 약하며 소외받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국제화
- 국민의 모든 잠재력의 발전과 경제 질서를 조절하는 원칙으로서 형제애 실현
- 모든 이가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한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참여로서 보조성의 원리 확산
- 만남과 공유의 문화로서 지상 재화의 공동 목적지;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조화, 평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복지와 더불어 '공동의 집'을 보살피는 것.

이는 우리에게 모든 남성과 여성이 지닌 인간성을 다시 일깨우고 가꾸어 가며, 그들이 자신의 성소, 존엄성 그리고 운명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고 성장하게 하는 교육 활동을 요구합니다. 또한 '새로

운 정치 세대'들이 공공의 삶에 참여하고 선을 추구하기를 멀리하지 않고, 카리스마에 따른 모습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곳에서 현존하게 하는 교육 활동을 요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미래는 정치인, 위대한 지도자, 대기업들의 손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네, 그들의 책임감은 매우 큼니다. 그러나 미래는 무엇보다도 타인을 '우리'의 한 부분인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너'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²⁷⁾ 침묵과 무관심을 넘어설 것을 요청하는 '우리', 즉 이 시대의 시민인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동일시되는 살레시오 카리스마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레시오회 회헌 회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이 스스로가 진리로 개방되고 책임 있는 자유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화와 봉사으로 이끄는 진정한 가치들에 대한 신념과 취향을 그들 안에 일으키도록 노력한다."²⁸⁾ 그리고 우리의 거대한 살레시오 가족의 부분이 되는 다양한 그룹들의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습니다.

27) 교황 프란치스코, TED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2017).

28) 살레시오회 회헌 32조와 22조 참조.

리미니의 오라토리오 학생이었던 복자 알베르토 마르벨리는 이 모든 것의 모델 중 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도시'에서 살아 있는 신앙의 표현에 대한 응답과 봉사로서 정치에 헌신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이를 삶으로 실현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당시 교회가 가르치고, 사회에 관한 문제를 다룬 회칙을 읽음으로써 알게 된 연대와 정의에 관련된 이상들을 자신의 삶으로 육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에게 정치란 사랑이었고, 사회적 사랑의 마지막 결과이자 진리의 도구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의 시복식 강론 때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기도 안에서 정치 활동에 대한 영감 또한 구하였으며, 정치 활동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활동으로써 사회-정치적 헌신에 대해 교육받은 젊은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돈 보스코의 사회-정치-교육적 선택"의 유효성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필수 불가결한 여정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사회 공동체의 선을 위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게

하는 사회적·정치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²⁹⁾

이것은 아직 더 성장해야만 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사회 정치 교육에서 일종의 도전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정직한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과 모든 영역에서 그에 따른 권리들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 안에서 관대하게 살고 서로의 헌신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 준비하는 것, 특히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것, 정직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직업을 발전시키는 것, 정치 분야에서 정의와 평화와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 창조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³⁰⁾

교육은 그 자체로 정치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시민권, 사회에 대한 사명의 정치적 차원과,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면 교육활동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그렇듯이, 현실에 새로운 윤리적 표준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교육자인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29) 파스칼 차베스, 『교육자 돈보스코처럼』, ACG 415.

30)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 위원회, 이탈리아판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 p.99, 제23차 세계총회, 178항.

다. 따라서 우리 교육 활동이 졸업생을 배출하는 정도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현실 앞에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변화를 위해 매진하는 시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받은 '양성'대로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공동선의 주인공으로, 적극적 시민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경제와 정치, 교육과 노동, 사회적 책무와 대중매체의 세상에서 변화와 개선, 희망과 쇄신의 주역으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의 교육자, 봉헌자 그리고 평신도로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씨앗을 뿌렸으므로 그 씨앗은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삶의 방식과 태도가 될 것입니다.

2.4. 정직한 시민: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직성과 합법성에 대해 교육하기

수고와 전문성 없이 아주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 낼 수 있는 정직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양성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동반하려고 할 때, 결코 멈출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들 인생에 대해 선택을 하고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에 대해 교육해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삶이나 자기기만, 억압하는 노예 형태 또는 인간의 내면성을 쇠약하게 만드는 비윤리적인 응답으로 전락하지 않는 투명성이 지닌 아름다움을 교육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직과 투명성으로 당신이 선포하는 바를 직접 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잠깐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루카 4, 18-19 참조). 타인을 섬기는 모범으로 발을 씻어 주셨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대가를 치르신 사랑과 진리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기주의, 자기준거주의, 자신만의 이득 추구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어 살인에까지 이를 정도로 '진실'이 되어 버리는, 기만으로 부패된 구조적 불의를 본인의 육체를 통해 직접 겪으셨습니다.

교육자인 우리들은 정직과 합법을 삶으로 실천하고 장려하여야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방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종종 '사이렌의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는 인간의 내면성을 타락시키는 길, 통합된 인간성과 힘, 우리의 참모습인 진리를 해치는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제안합니다. "사회 전

체는 다양한 형태의 부패라는 암적 존재와 맞서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 부패는 사회구조의 가장 괴로운 상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윤리 및 경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손상을 사회에 입히기 때문입니다. 빠르고 쉽게 이윤을 얻는다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투명함, 믿음을 앗아 갑니다.³¹⁾

→ 젊은이들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예방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자인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불의, 거짓, 위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을 찾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어떤 모범과 생각,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 양심, 비판 능력, 진리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옹호하기 위한 고발과 같은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교육과 복음적 가치를 통하여 무엇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31) 교황 프란치스코, 법원 공무원들과의 알현, 바티칸 시국(2019, 3, 18).

많은 사회에서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린 부정부패는 '죽음의 과정'입니다. 확실히 부정부패는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 진정한 악이요 심각한 죄이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결코 혼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각자의 힘이 되도록 희망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청소년 단체들은 항상 시민교육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교육과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타입의 시민을 전제로 하는지 자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은 교육을 교과 교수와 학습, 시험 준비로 축소시키려는 엄청난 압력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대부분, 적어도 세상에서 살레시오 가족으로 현존하는 교육자들이, 학교란 어린이들에게 읽고 쓰는 것, 수학 문제를 푸는 법, 과학과 역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지닌 비전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형태를 부여하는 중요하고 효력 있는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에 대해 질문을 던지도록, 나아가 삶의 이상으로 제시되는 바에 대해 토론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자신의 관점과 견해를 표현하고, 자신의 환경과 삶의 특수한 상황,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위한 꿈에 대해 고려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동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잘 준비되고 활기차며 관대하고 유능하며 비판 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인식하도록 가

르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자신을 신뢰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여정을 인내로써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긍정적인 삶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성을 재정립합니다. 또한 교육한다는 것은 쇠신된 대화의 능력이고, 흥미 가득한 제안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본질적인 것에 단단히 닦을 내린 것입니다. 일상의 노력에 대한 가치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에도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³²⁾

2.5. 정직한 시민: 세계의 이주와 이민에 대한 감수성과 공동 책임감

제가 지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각기 다른 방문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예를 들어 언급하려 합니다. 오늘날 강한 영향을 주는 이주 현상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살레시오 형제들과 살레시오 가족의 대단한 창의력과 헌신에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케냐의 북쪽, 카쿠마(Kakuma)에 있는 약 19만 명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난민 캠프에서 이를 확인할

32)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 위원회, 이탈리아어판 『살레시오 청소년 사목』 p.85.

수 있었습니다. 살레시오회의 우리 형제들은 직업교육, 오라토리오, 청소년 센터 그리고 교육사목 활동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 특히 남수단과 소말리아의 젊은이들을 전인적으로 보살피며 살아가는 난민 캠프 안의 유일한 공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저는 멕시코 티후아나(Tijuana) 지역에서 특수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급식소와 오라토리오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경제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그곳 국경 지역에서 미래를 찾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을 동반하며, 폭력과 마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로마의 '예수성심' 공동체에는 젊은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작지만 역동적인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적인 센터는 세계 각지의 젊은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살레시안 DNA로부터 나온 이러한 감수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전 세계 살레시오 가족을 통하여 젊은 이민자들의 필요에 대해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이주민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이주민들을 돌보기 위한 선교사인 그의 아들들을 파견했던 바로 그 이주민의 자녀들입니다."

현상

이주 현상은 오늘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사람들의 가장 큰 이동이며, 당대

의 구조적 현실 안에서 변화하였고,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관점에서 점점 더 복잡한 현실을 구성하며 불규칙한 이주 형태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균형에서부터 무장 갈등과 인종적·종교적 박해로 인해 변화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위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지구상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막화 현상과 같은 이상기후, 또한 의사소통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고 가능하다는 점도 이주 현상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국제 이민자 수는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3.5%인 2억 716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900만 명이 18세 미만입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내부 이민(또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이민)은 7억 9000만 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들 중 7080만 명이 강제 이주라는 점입니다. 4130만 명은 특히 전쟁으로 인하여 자국 내부에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고국을 떠난 2590만 명의 난민 중 350만 명이 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UN의 공식 데이터이지만 그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강제 이주자의 절반은 18세 미만입니다. 이들 중 11만 1000명의 젊은이들이 가족과 동반자가 없다고 집계되었습니다. 점점 더 눈에 띄지 않지만, 도시에서는 더 많은 난민(61%)이 살고 있습니다.

돈 보스코

우리 수도 가족에게 있어서 이주 현상은 카리스마적 새로움이 아닙니다. 돈 보스코 자신 또한 시골 지역인 베키의 평온함과 소박함을 뒤로하고 키에리로 이주하였으며, 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도시 토리노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돈 보스코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의 오라토리오에 받아들인 첫 젊은이들은 피에몬테의 수도에서 일을 찾기 위해 시골 지역에서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이주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젊은이들은 이발리아어도 피에몬테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 보스코가 젊은이들을 본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하던 토리노의 몇몇 본당 신부와 별인 논쟁에서, 성인(聖人)은 그들이 모두 이방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의 모두가 타지방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나왔다가 찾지 못하고 아이들을 그냥 이곳에 버려둔 채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또 일자리를 찾아서 혼자 도시로 나온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보이 지방, 스위스, 아오스타, 비엘라, 노바라, 롬바르디아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 그들은 각양각색의 시투리를 쓰고 거주지가 불확실하며, 도시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본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습니다.”³³⁾

33) 『돈 보스코의 회상』, pp. 227-228.

살레시오 선교사 파견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탈리아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돈 보스코는 1875년 첫 선교사 파견식 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가십시오, 고통과 불행으로 인해 외국으로 가게 된 우리의 형제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영혼의 선을 위해 보내는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활동하십시오.”³⁴⁾

돈 루아, 돈 알베라(돈 보스코의 2대 후계자) 시대에 살레시오회는 이탈리아, 폴란드와 독일인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주민들 사이에서 실현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벌써 1904년 미국에서만 45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레시안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³⁵⁾ 또한 돈 루아는 여러 해에 걸쳐 활동을 하였던 ‘이주민들을 위한 살레시오 위원회’를 건립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미국, 아프리카, 중동에 있는 유럽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공산 정권 당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도피했던 유럽 내 유럽인 이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엄청난 사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주 현상은 방법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살레시안의 역사 안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젊은

34) 이탈리아어판 『돈 보스코 전기 11권』 토리노, p.385(1930).

35) MOTTO F., *Bosco (Don) Giovanni e la missione dei Salesiani per i migranti*, in, BATTISTELLA G. (a cura di). *Migrazioni. Dizionario Socio-Pastorale*, Cinisello Balsamo(Milano), 62(2010).

이들의 이주는 문화·사회·종교적 차원, 인류 통계학적 영향 그리고 정보화 기술과 연관된 새로운 관점, 세계화, 이동의 용이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도전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동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종-민족주의의 전통적인 형태보다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친교의 사목**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역시 난민,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들, 인신매매와 같은 새롭고도 극적인 현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청소년 대륙' 앞에 있는 우리 살레시오 가족에게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미래의 비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강요된 이주를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현존하는 것 외에도, 긴급 상황에서 돈 보스코 가족의 사목터 대부분이 수십만 명의 1세대 혹은 2세대 이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우리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보통 매우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제공되는 이 귀중한 봉사는 이주 젊은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이 시민사회와 교회에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인간 이동이라는 이 막중한 현상 앞에서 우리의 활동은 우리 카

리스마적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 무엇보다도 모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그들에게 일정 정도의 교육·사목 과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우리의 교육·복음적 접근이 NGO 활동으로 축소되는 것을 피하면서 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 사명은, 이토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명을 위해 역량을 갖춘 평신도와 수도자들 사이에 삶의 친교를 이루는 교육공동체에 맡겨집니다.

→ 지속적인 '교육적 현존'으로 우리 대상자들의 지리적·실존적 영역으로 최대한 들어갑니다.

→ 단순히 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나 인도주의 단체로서가 아니라 교육자요 사목자로 그들 곁에 머무는 친구와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 '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강제 이주의 급박성 없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적응하도록,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서 활용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이주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항상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이며, 더 가시적이고 전문적인 현존이 되어야겠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이 개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각 그룹이 사명을 위해 고유한 선물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원봉사와 살레시오 청년 운동은 이렇게 이동 중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매진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지평을 발견합니다.

'대륙'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이동 중인 이 다수의 대상들은 21세기의 우리들에게 강하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사목적이고 카리스마적이며 성소적인 해신의 진정한 원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6.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공동의 집을 보살피는 정직한 시민

공동의 집에 대한 책임(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제안한 생태학의 비전)은 추가된 하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 신앙, 생활양식, 사명, 교육 그리고 복음화를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시각입니다. 또한 (인간적·영적인 가치에서) 생태학은 우리에게 전인교육에 대해서도 제안합니다. 우리가 공동의 집 또는 피조계 돌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취사선택이 가능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고, 우리 뒤에 올 이들이 속해 있는 지구의 정의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모든 세대가 받은 재산이며, 모두는 후세대에 이 유산을 전달해야 합니다.

몇 가지 사목 제안

→ 생태적 회심

첫 번째 제안은 사고방식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에 관련이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렬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³⁶⁾ 이를 위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성, 즉 지구를 돌보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 효과적인 생태적 회심에 뿌리를 둔 강하고도 효력이 있는 영성을 채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술만을 사용하여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의 변화 추구라는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뿌리를 향해 가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는 소비에서 희생으로, 탐욕에서 관대함으로, 낭비에서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건너가야만 합니다.

36)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9항.

→ **공동의 집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에 젊은이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동반합니다.**

아마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위대하고 강력한 힘, 가장 큰 반응과 항의가 바로 젊은이들을 통해서 거의 세계적 수준의 운동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태 문제에 관해 잘 준비되었고,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권을 행사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 스웨덴 출신의 열여섯 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 갔습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의 이야기들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배신을 알기 시작했습니다.”³⁷⁾
- 이 강력한 말은 지도자들에게는 자극이 되었으며, 어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공동의 집을 구원하려는 젊은이들의 거대한 운동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세대는 바

37) See #FridaysForFuture e #Climastrike.

로 구체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800개가 넘는 가톨릭 단체의 국제 네트워크인 세계 가톨릭 기후 운동의 '청소년부'입니다. 그들은 이상기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와 세상이 행동하도록 요구하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보스코녹색연맹(Don Bosco Green Alliance)' 및 '살레시오청년운동(Salesian Youth Movement)' 그룹은 살레시오 가족을 대표하여 이 국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교육자로서 우리는 이미 신발을 신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창문이나 텔레비전 화면 앞 소파에 누워 있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젊은이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자극하고, 그들의 신발을 신기는 데 매우 탁월하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³⁸⁾

→ 인간 생태학을 향하여

환경 생태학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통합 생태학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1970년대, 교황 바오로 6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황이 이 관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간 생태학'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의 회칙 「백주년*Centesimus Annus*³⁹⁾에서 소개한 용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38) 교황 프란치스코, 칠레 사목 방문 중 젊은이들에게 한 연설(2018, 1, 17).

39) Jostrom Isaac Kureethadam, *I dieci comandamenti verdi*. Torino: Eledici, 142(2016).

되찾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생명 자체가 많은 타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선물이기에 인간 환경의 파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⁴⁰⁾

→ 교육 그리고 문화 활동

-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생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대한 교육 및 문화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함⁴¹⁾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우리의 교육 제안은 정보 제공, 교육, 문화 형성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⁴²⁾
- 소비주의에 맞서기 위하여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원칙 [3R: 감소(reduce),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 우리는 생태 문제가 부당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화해와 치유, 환경-인간-사회-통합적 생태학에서 비롯된 선한 구조가 필요합니다.⁴³⁾ 바로 이것이 교육자인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제

40)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5항.

4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36항.

42) Aldo Coda Negozio, Guglielmo Aldo Elena, *Gestire il pianeta terra*, Torino: Società editrice internazionale, P.XI(1995).

43) Tebaldo Vinciguerra, 'Ecologia', *Note di pastorale giovanile*, p.74.

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생태 시민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근본적인 성찰은 우리의 살레시오 감수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살레시오 형제 Joshtrom Isaac Kureethadam은 생태 영성을 다루는 교회의 부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녹색 십계명』 *Dieci Comandamenti Verdi*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창조주를 향한 커다란 감수성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동기와 이득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 인권 보호, 특히 청소년보호법

저는 살레시오 가족에게 강한 호소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미래에, 모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돈 보스코 안에서 활동하신 성령으로 인해 태어난 우리의 목적은 청소년, 젊은이, 온 세상의 소년소녀들, 특히 가장 무방비하고 곤궁에 처해 있으며 연약하고 가난한 젊은이

들을 위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권 보호, 특별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젊은이들에게 눈물로써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제15차 세계주교대의회회의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에서 정의 내린 “경제적·의식적·성적인 권력”의 남용을 의미하는 어떠한 폭력에도 우리가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⁴⁴⁾

돈 보스코 가족으로서 우리는 인권 증진을 위해 온 교회가 애쓰는 모든 노력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회교리의 발전과 함께 교회의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말거진 복음의 힘으로 인해 인권을 선포하고, 오늘날 어디서나 인간의 권리가 증진되게 하는 역동적 움직임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시민사회는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돈 보스코 가족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를 이루는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

44) 제15차 세계주교대의회회의,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최종 문헌」 30항.

난 존엄성⁴⁵⁾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인권의 객관적인 차원을 회복 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없다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급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손상을 가져오는 단락 회로처럼 될 것이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회적 차원을 사는 데 무능력한 인간의 열매, 이 기심에서 비롯된 무관심의 세계화가 촉진⁴⁶⁾됩니다. 현대의 유혹은 ‘권리’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여 더 중요한 ‘인간’이라는 말을 도외시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라면, 권리는 단지 이해 집단의 구호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 돈 보스코에게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소년은 수동적인 수혜자, 도와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단순한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뉴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 193개국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국제 협약인 아동권리협약(1989년 11월 20일)이 체결되기도 전에, 돈 보스코는 이미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소외된 소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앞당겨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며, 교육자와 피 교육자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중요시하였습니다.

45)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 제정.

46) 교황 프란치스코, 유럽 주교단을 위한 연설(2014, 11, 25).

- 미성년자의 인권과 예방교육은 공통된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전면적인 복지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이든 예방교육이든 아동을 위한 그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통합적 돌봄, 책임감을 지닌 인간으로의 양성, 건강한 환경 조성, 긍정적인 훈육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인권 보호

1. 2019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계 지역 교회 주교회의 의장들의 회의가 '교회 내 미성년자 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190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140명의 주교단 의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성령께 순응하며, 정의를 호소하고 있는 작은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스캔들은 복음의 빛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으며,⁴⁷⁾ 권력과 양심의 남용은 악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2. 유엔의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 협약'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47) 교황 베네딕도 16세,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낸 사목 서한(2010, 3).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해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협약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 내리고, 돌봄, 보호, 신원 확인, 사례 관리, 보고 및 의뢰의 표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과 모든 형태의 방임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손상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받을 권리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의 네 가지 측면을 규정합니다.

3. 우리의 교육 사목 계획에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재차 강조했듯이, 미성년자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⁴⁸⁾ 이는 완전한 참여의 길을 열어 줍니다. 참여는 개인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은 결정과 결과를 이끌어 내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와 발전, 다른 이들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이룩하는 데 공헌하며, 책임감을 강화합니다.
4. *미성년자 권리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성찰*: 인권과 미성년자의 권리를 다루는 많은 자료들과 선언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교회 및 세계 수준이며, 또 다른 일부는 지역별 또는 특정 주제에 맞추어져 있

48) 제15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최종 문헌」, 6항.

습니다.⁴⁹⁾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설득력 있는 교육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자료들을 연구하고, 우리 현실에 널리 전파하여야 합니다.

5.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기:**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일하는 많은 다른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실제로 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형태로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구에서는 몇 살레시안들이 '청소년사법위원회'의 일원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살레시안들은 변호사로 현존하며, 민사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에서 복음적 가치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해 유니세프는 "예방을 지원하고, 보

49) Motu Proprio, *On the protection of minors and Vulnerable Persons*, issued on 29, March, 2019 - 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 Secretariat, *Guidelines: promoting the human rights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ransnational child protection cases*, Sweden: 2015. - Rachel Hodgkin and Peter Newell,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CEF(2007).

호와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법률, 정책, 규정 및 서비스의 조합"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우리가 현존하는 장소는 주로 사회복지와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살레시오 가족으로서 우리들의 '작지만 큰' 공헌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7.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모든 사업체에는 모든 이, 축성 생활을 하는 남녀 축성 생활자, 평신도 교육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윤리 강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윤리 강령 자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맺는 우리의 개인적·공동체적 관계가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축성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 근본적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양식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셨으며, 그분 제자의 모델로서 제시한 어린이들과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더 일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 예방교육과 인권: 두 가지 제안

우리들은 함께 인권 향상을 위해 좋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존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방교육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 사랑의 사회적 차원을⁵⁰⁾ 지탱하는 돈 보스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1. **예방교육을 단순히 억압 교육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방교육을 억압 교육과 다른 교육체계로만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지닌 잠재력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권 증진을 위하여 내재된 잠재력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2. **시민이 준수하는 법률 제정에서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선언해 왔고, 정직한 시민 양성이란 법을 존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미래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교육해야만 합니다. 사실

50) 살레시오회 제23차 세계총회 의안집 204, 209, 212항.

권리가 주장되지 않으면 무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⁵¹⁾

마지막 한마디: 정치에 관해 돈 보스코가 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지금까지 제가 매우 중요하고 시사적이라고 여기는 다양한 면을 언급한 저의 긴 이야기를 돈 보스코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인용문 중에서, 1883년 7월 15일 돈 보스코의 축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라토리오에 되돌아온 졸업생들에게 한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돈 보스코는 이 말씀의 상당 부분에서 정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 내려온 내용과 거의 맥락이 같으며 빛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도움 그 이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다그쳐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줄 것은 우리 활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믿는 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반대한다면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

51) Jose Kuttianimattathil, 'Don Bosco's Educative Method and the tenets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Charles Maria, Pallithanam Thomas, Dörrich Hans-Jürgen, Reifeld Helmut; *In Defence of the Young*; New Delhi(2010).

리에 대해 모르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이들, 버림받은 이들, 위협에 처한 이들을 위한 시민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태만, 잘못, 불명예, 심지어 감옥으로부터도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활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별 있는 그 누구, 권위 있는 그 누구인들 우리의 이 활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최근에 파리에 머무르면서, 우리 사업의 동기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여러 성당에서 연설하였습니다. 푹 터놓고 말해서 결코 식욕을 잃는 일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빵과 수프를 마련할 돈을 모으기 위해 연설했습니다. 청중 가운데에는 오로지 돈 보스코의 정치사상을 알아보기 위해 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혁명을 조장하려고, 일부 다른 이들은 제가 소속 정당을 찾기 위해 파리에 왔다는 등등 어림짐작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해 우호적인 이들은 저에 대해 어떤 추문이 날까 봐 정말로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연설의 첫마디부터 그들의 모든 착각은 사라졌고,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돈 보스코는 프랑스의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치에 직접 개입하여 활동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게 우리를 놔두기만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행정 당국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을 준수하며, 세금을 지불하고 계속 활동해 갑니다. 만약 원한다면 우리가 정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정치를 행하는 방식은 전혀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일 것입니다.

정치는 국가를 통치하는 과학이요 예술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오라토리오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많은 나라,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아메리카에서는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종한 아이들과 방랑 생활을 하는 이들, 청소년 범죄자와 강도의 숫자를 줄이고, 감옥을 비우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공공 당국을 성가시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사회의 질서, 평온, 평화를 유지하는 데 지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 활동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정치 활동에 대해 관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둘 것입니다.”⁵²⁾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요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성적 중재를 통하여, 불평등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우리를 촉구하는 이 사회에서 계속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한 진정한 ‘주님의 기도’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간구합니다. 하느님을 항상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토록 세심하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당신의 자녀들과 매일 만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증거자·제자·선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52) ISS, Fonti Salesiane, *Don Bosco e la sua opera*, p.106, LAS, Roma(2014).

그러니 함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돈 보스코 안에서 당신을 관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돈 보스코의 몸짓에서 당신을 보고,

돈 보스코의 행동에서 당신의 걸음을 식별하며,

돈 보스코의 애정에서 당신의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당신 제자인 돈 보스코의 삶의 양식을

내면화하도록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저희 마음이 착한 목자이신 당신 마음과 같이 되게 해 주시고,

당신 말씀을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⁵³⁾

총장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 신부

53) Xabier Matoses, *Spirito Salesiano*, en José Bartolomé (ed), *Luce sui miei passi*. Elledici, 2016.

